

금속노조 경남, 경주, 광주전남지부 임원선거 경선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전북, 포항 입후보자 없어 ... 12월 3~5일, 동시 투표 진행

11월 20일 17시 금속노조 14개 지역지부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경남, 경주, 광주전남 등 세 지부는 각각 두 개 후보 조가 경선을 벌인다. 구미, 서울, 인천, 울산, 충남지부는 단독 후보다. 경기지부는 부지부장 후보만 등록했다.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전북, 포항 등 다섯 개 지부는 등록된 후보자가 없다.

경남, 홍자욱-김은형 경선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후보 조는 기호 1번 홍자욱(개별)-김일식(현대로템지회)-김정철(개별)과 기호 2번 김은형(한국산연지회)-윤현관(피케이벨브지회)-이동규(마창지역금속지회) 등이다.

네 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지부장 선거에 기호 1번 김석환(효성중공업지회) 후보와 기호 2번 강응표(두산중공업지회) 후보 두 명이 출마했다. 여성할당 부지부장 선거는 이은선(마창지역금속지회) 조합원이 단독 입후보해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경주, 정진홍-최재소 경선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에 기호 1번 정진홍(개별)-차상희(현대HL지회)-김창우(다스지회)와 기호 2번 최재소(다스지회)-임진홍(에코플러스지회)-유영훈(디에스지회) 후보 조가 등록했다.

두 명을 선출하는 부지부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원태(다스지회), 기호 2번 윤태근(엠에스지회),

기호 3번 박진만(다스지회), 기호 4번 김철호(다스지회) 후보 등이 등록해 경선으로 진행된다.

광주전남, 정준현-안지섭 경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는 기호 1번 정준현(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김도형(금호타이어지회)-임양희(현대삼호중공업지회)와 기호 2번 안지섭(금호타이어공성지회)-구희수(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최용현(광주지역금속지회) 등 두 개 후보 조 경선으로 치른다.

세 명을 선출하는 부지부장 선거에 기호 1번 윤영생(전남서남지역지회), 기호 2번 고미경(엠코지회), 기호 3번 오미령(광주지역금속지회), 기호 4번 박성진(광주지역금속지회), 기호 5번 이동원(현대제철지회), 기호 6번 채규행(포스코사내하청지회) 후보 등 모두 여섯 명이 등록했다.

구미 김성훈, 서울 박명선, 인천 두대선, 울산 윤장혁, 충남 정용재 단독 출마

금속노조 구미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후보는 김성훈(KEC지회)-정의엽(KEC지회)-김정태(아시히비정규직지회) 등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0기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인 박경선(남부지역지회)-김도현(경기북부지역지회)-이규철(남부지역지회) 조합원이 출마했다. 구미, 서울지부 모두 부지부장 입후보자는 없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임원선거에 현재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인 두대선(현대제철지회)-

이대우(개별)-한대훈(한국TV지회) 후보 조가 등록했다. 부지부장 선거는 기호 1번 신현창(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후보와 기호 2번 정인주(GMTC지회) 후보가 출마해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윤장혁(고강알루미늄지회)-오훈도(한국프랜지지회)-고은이(개별)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했다. 부지부장 선거에 기호 1번 김성중(서연이회) 후보와 기호 2번 황승연(세종지회) 후보가 등록해 찬반투표를 벌인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임원 후보는 정용재(현대제철지회)-정상만(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하형석(대한칼소너) 등이다. 부지부장 선거는 기호 1번 강환근(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기호 2번 방철희(다스지회), 기호 3번 장용관(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 세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전북, 포항 등 등록연장보충선거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입후보자는 없고, 여성 할당 부지부장과 일반 명부 부지부장 후보 각 한 명씩 등록했다. 엄미야(경기금속지역지회) 조합원이 여성 할당 부지부장, 김영배(한온시스템평택지회) 조합원이 일반 명부 부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전북, 포항지부 등은 입후보자가 없다. 부산양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6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겠다" 라고 공고했다. 대구, 대전충북, 전북, 포항지부는 조만간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충선거 일정을 논의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임원선거 두 개 조 등록

기호 1번 조경근, 2번 유상구 후보 경선 ... 11월 27일 1차 투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3기 임원선거에 두 개 후보 조가 출마했다.

11월 20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두 개 조가 접수를 마쳤다” 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 임원선거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 등 네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치른다.

기호 1번 조경근(엔진 대형엔진 조립1부)-이용우(조선 판넬조립5부)-조운성(특수선 수중합생산부)-문대성(해양 내업생산부) 후보 조는 ‘조합원의 영원하라 민주노조’ 를 제시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현 현대중공업지부(아래 현중지부) 사무국장인 조경근 지부장 후보는 1988년 현대엔진본관 점거농성투쟁 옥상경비대장, 2014년 현

대중공업노조(아래 현중노조) 조 직쟁의실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용우 수석부지부장 후보는 현재 현중지부 6분과 분과장이며, 조운성 부지부장 후보는 2016년 현중노조 노동문화실장 등으로 일했다. 1996년 현중노조 편집실장, 2014~2017년 현중노조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해 온 문대성 조합원이 기호 1번 사무국장 후보다.

기호 2번 유상구(조선 의장2부)-류기열(조선 의장2부)-김상민(조선 의장5부)-이동근(조선 기계의장부) 후보 조는 ‘바뀌야 산대 6년의 고통, 이제는 끝내자’ 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유상구 지부장 후보는 현재 현중지부 4분과 지단장으로 2004~2007년 현중노조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류기열 수석부지부장 후보는 현재 현중지부 대의원이며, 김상민 부지부장 후보는 지부

소위원을 맡고 있다. 금속노조 대의원인 이동근 사무국장 후보는 2018년 지부와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두 후보 조는 입후보자 확정 공고날인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현중지부 선거관위는 11월 25일 오후 1시 후보 합동 유세를 연다. 현대중공업 사내체육관에서 네 시간 동안 진행하며, 참관 조합원들은 시간 할애 유급 인정을 받는다.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유세 현장을 현중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1차 투표는 11월 27일 하루 시행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11월 29일 2차 투표를 치른다. 당선자 임기는 2020년 1월 1일 시작해 2021년 12월 끝난다.